

# 석유업계소식

## 動資部, 올 에너지需給計劃 확정 石油수요 1억9천7백44만배럴

우리 나라는 올 한해동안 모두 5천2백49만4천톤(石油환산)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84년도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도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에너지 수요증가세가 계속돼 石油는 지난 해보다 2.5% 늘어난 1억9천7백44만배럴, 무연탄은 2.8% 증가한 2천1백90만8천톤, 유연탄은 29% 늘어난 1천2백10만톤, 전력은 10.2% 증가한 4만6천8백38 GWh가 각각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해 총수요 4천9백54만톤보다 6.0%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가정연료 고급화에 따라 가스 보급량도 1천1백64만5천배럴로 지난 해보다 12% 늘어나 총에너지중 가스비중이 2.3%에 달하고 있다.

가스등 석유이외의 에너지源 소비증가로 석유의존도는 지난 해보다 2.3%가 떨어져 54.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소비량증가로 지난 해보다 1.1%가 늘어난 76.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너지輸入額은 石油 60억2천5백만달러, 석탄 7억8천8백만달러, 우라늄 1억5천3백만달러 등 모두 69억6천6백만 달러이다.

石油의 경우 지난 8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反轉되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 84년 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83(잠정) 증가율		84(계획) 증가율	
석 유(천Bbl)	192,619	6.3	197,440	2.5
무연탄(천톤)	21,305	2.1	21,908	2.8
유연탄(천톤)	9,383	10.3	12,100	29.0
수 력(Gwh)	2,551	27.2	2,524	▲ 1.1
原子力(Gwh)	8,928	136.4	10,774	20.7
薪 炭(천톤)	8,443	▲ 2.2	8,257	▲ 2.2
電 力(Gwh)	(42,500)	12.2	(46,838)	10.2
총에너지(천TOE)	49,540	7.8	52,494	6.0

## 가스安全基金 징수 生産·輸入業者에

정부는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가스安全基金을 신설, 올해부터 가스생산업체와 수입업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안전사업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가스업체의 자체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까지 가스용품의 안전검사를 전담해온 韓國가스安全公社의 기능을 개편, 선진기술의 연구개발 및 안전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가스안전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국내 LPG(액화석유가스)수요는 82년 63만톤이던 것이 83년에는 85만톤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1백7만톤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가스安全公社가 징수하는 검사료만으로는 안전관리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동자부는 가스안전기금을 신설, 오는 7월 1일부터 LPG생산업체와 수입업자로부터 판매가격(소비자)의 0.5% 정도(kg당3원80전)를 징수, 이 기금을 바탕으로 각종 가스안전관리사업을 벌이고 충전소의 대형화에 따른 충전소의 용기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동자부는 오는 91년까지 이 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는데 91년까지 기금징수총액은 약 3백8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油田개발 成功拂 翁자 실패하면 元利金 안받기로

정부는 오는 90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쓰는 원유의 10%(약 하루 7만 배럴) 정도를 우리 민간기업이나 石油開發公社가 참여해 직접 생산하는 원유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석유 개발기금을 개발에 성공할 때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成功払로 꾸어 주기로 했다.

최근 동력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석유개발기금 융자기준」에 따르면, 석유개발 기금을 융자받아 석유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이자 年 8%)과 Kℓ 당 6 백 4 원의 특별부담금을 붙여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가 투자한 돈의 80%를 융자해 주는 국내 대륙봉개발의 경우 투자기업체는 개발에 실패할 경우 자기 투자분 20%를 버리는 셈이다. 해외유전 개발에서 실패할 경우는 직접담사비의 20%와 간접비용을 잃게 된다.

국내 민간기업체에서 개발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투자회사인 石油開發公社가 외국회사와 50대 50의 자본으로 합작, 개발케 하되 민간기업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韓國지분 5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차 低硫黃油사용확대 環境庁, 全国일 원으로

정부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慶南北지역에만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용 低硫黃油(유황함량 0.4% 이하) 사용의무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환경청은 지난 12월 16일 전국 13개 시도환경관계관회의를 열고 대기·수질·폐기물 등 84년도 주요환경보전시책방향을 시달렸다.

환경청은 우선 내년 7월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 휘발유 및 LPG 차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현재 km당 26.8g에서 18.8g으로, 탄화수소는 3.88g에서 2.88g, 질소산화물은 3.08g에서 2.58g으로 각각 줄이도록 했다.

또 디젤차의 경우는 매연만을 규제했던 것을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도 추가로 규제키로 했다.

환경청이 이같이 자동차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규제키로 한 것은 지난해 8월말 현재 전국의 차량대수(73만1천7백69대)가 오는 91년에는 2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80% 이상이 서울, 釜山, 仁川, 大邱, 光州 등 대도시에 밀집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자동차용 저유황유의 사용의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업용 B-C油(유황함량 1.6% 이하)의 사용지역도 전국 34개 공단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 石油品質검사소 소장에 이사회서 朴鼎五씨 선임

韓國石油品質검사소는 지난 12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소장에 朴鼎五 동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선임했다.

## 긴급관세 40% 적용 輸入유탄유, 올上半期에도

정부는 국내유탄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도 수입유탄유에 대한 긴급관세율을 종전과 같이 계속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산업정책 심의회를 열고, 84년도 상반기 긴급관세대상품목으로 유탄유 등 38개 품목을 확정했다.

그런데 유탄유의 기본세율은 30%이다.

## 勸友會 발기총회 초대회장에 劉珪鍾씨

동력자원부 출신 공무원모임인 勸友會는 지난 12월 19일 韓國經濟新聞 회의실에서 발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劉珪鍾전차관(현 高麗綜合化學사장)을, 고문에는 張禮準 전장관 등 5명의 전임장관을 각각 선임했다.

## 石油協會 新年시무식 최선의 努力 다짐

대한석유협회는 1월 4일 상오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4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劉珪鍾부회장은 『올해는 협회가 작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보람찬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각지는 말은 바 임무에 대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단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회의 발전을 이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油類品質검사 본격화 石油品質검사소, 3月부터

오는 3월부터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설립된 韓國石油品質검사소(이사장 姜龍植)가 오는 3월 1일부터

터 업무를 개시, 우선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유사·불량휘발유등 석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석유품질검사소는 또 오는 85년 1월 부터는 LPG(액화석유가스), B-C油 등으로 품질검사대상 油種을 확대하고, 86년부터는 검사대상을 全油種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 油公임직원 일선장병위문 지난 12월 8일

金恒德 油公수석부사장은 지난 12월 8일 趙圭鄉 인사 및 총무담당상무, 李晟熙 비상계획부장 등 임직원과 함께 전방의 ○○부대를 방문, 대형 온풍기 6 대와 석유난로 45개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일선장병들을 위문했다.

### 油公, 간부급 人事 2명 승진, 2명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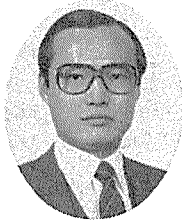
油公은 지난 12월 1 일자로 皇甫烈 정유시설확장사업부정유시설차장을 정비부 부장, 金周英 기술부배관과장을 정유시설확장사업부정유시설차장으로 승진·발령했다.

油公은 또한 지난 12월 1 일자로 李榮東 관리부자료처리과장을 공장장실노무관리팀장(과장)으로, 金동수 기술부과장을 기술부배관과장으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 京仁에너지 任員人事 李鍾學전무, 부사장 승진

京仁에너지는 유니온 오일의 철수에 따른 내국화를 계기로 지난 1

## 유니온 오일 83年末로 철수완료 京仁에너지, 合作관계 끝내고 單獨經營



京仁에너지의 외국합작선인 유니온 오일이 지난 연말에 철수함으로써 京仁에너지는 자본의 내국화를 이루게 되었다. 京仁에너지에 따르면, 京仁에너지의 우리측 지주인 韓國火藥그룹(회장 金昇淵)과 美國측 투자자인 유니온 오일은 韓國火藥측이 총 5 천 2 백 20 만 달러에 美

합작선지분을 인수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 해 12월 30일 주식매매와 관련된 정부승인등 제반절차를 마침으로써 京仁에너지는 새해부터 명실상부한 민족자본화를 이루고 독자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초 京仁에너지에 대한 유니온 오일측의 경영권참여기간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지난 69년 설립된 후 20년후인 오는 89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양측의 경영상 견해차이로 경영권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京仁에너지는 내국화추진경위에 대해 『제 1 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석유수요를 충족키 위해 기존 6 만B/D규모의 정유공장을 16만B/D로 확장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었으나, 유니온오일측은 설립후 10년동안 당초 기대했던 적정배당이 실현되지 못한 것과 증설시 배당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여 오다가 제 2 차 석유파동으로 투자적기를 상실, 실현되지 못했으며, 그후 유니온측은 법정 저장시설의 확충등 제반시설투자를 기피하고 현상유지를 기본 운영방침으로 고수하여 재투자를 추진하려는 京仁에너지측과 경영상 견해차이가 많았다』고 밝혔다.

京仁에너지는 지난 69년 10월 발족한 이래 9 차례에 걸친 증자로 자본금규모가 51억 3 천 5 백 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韓美 양측의 투자비율은 당초 37.6%대 62.4%에서 지난 연말에는 50대 50으로 바뀌었다.

京仁에너지는 하루 6 만 배럴의 원유처리시설 이외에도 발전시설로(16만 2 천 4 백 KW급 2 基) 연간 18억 KWH의 전력을 韓電에 판매, 수익성은 양호한 편이다.

유니온 오일의 철수로 현재 韓國에 남아 있는 메이저는 湖南精油의 합작선인 칼텍스 하나 뿐이다.

월 1 일자로 새로운 임원이사를 단행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사장 金昇淵
- ▲ 부사장 李鍾學(京仁에너지전무)
- ▲ 영업·기획상무 禹完植(영업상무)
- ▲ 기획·관리이사 李祥致(전력사업부·부장)

- ▲ 영업이사 李淳鍾(판매부장)
- ▲ 관리이사 李榮雄(한국화약그룹경영관리실이사)
- ▲ 공장장(상무) 金榮燦(한국프라스틱상무)
- ▲ 정유담당부공장장 李英吉
- ▲ 발전담당부공장장 韓 熾

## 雙龍精油, 주유소 商号 간판 바꾸어 지난 12월부터 전면적으로

雙龍精油는 판매확충을 가속화를 위한 기업이미지 통합계획에 따라 전국주유소와 LPG대리점의 벽면등에 사용했던 수직 줄무늬를 지난 해 4월부터 사선형 줄무늬로 바꾼 데 이어 지난 12월부터는 전면 상호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雙龍精油는 홍보팀의 디자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상호간판을 제작, 지난 12월까지 京仁지역과 慶南 일부지역에 설치 완료했는데 앞으로 전국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새 간판의 특징은 야간 照度를 대폭 높이는 한편 주유소, LPG대리점 명칭 아래 雙龍精油를 상징하는 사선 줄무늬를 새롭게 추가하여 밝은 조도와 색상을 유지하고 시각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유소나 LPG 대리점을 찾는 고객으로 하여금 산뜻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 雙龍精油 展示館 설치 울산 상공회의소에

雙龍精油는 지난 12월 20일 울산 상공회의소 신축 준공과 함께 1층에 마련된 상설전시관에서 쌍용정유관을 개관했다.

蔚山商議 상설 전시관은 1층 전체 530m<sup>2</sup>에 쌍용정유 전시관을 비롯한 울산, 울주, 양산지역 우수제조업체 50여곳이 참가하고 있다.

쌍용정유는 넓이 2.4m<sup>2</sup>, 높이 2m의 유리창으로 된 외형안에 운환정유공장의 특징과 함께 무공해, 저유황 연료유 생산공장으로서의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기위해 대담한 줄무

늬(Stripe)를 벽면에 활용하고 제품의 특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형과 함께 간략한 설명도 곁들임으로써 광범한 계층의 관람객으로 하여금 쌍용정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배려했다.

## 雙龍精油 任員 승진 金鮮東·李善鍾상무, 전무로

雙龍精油는 지난 1월 1일자로 金鮮東상무와 李善鍾상무를 전무로, 洪晔植이사를 상무로, 趙顯榮생산부장과 李庸秀기획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 간염예방백신 접종실시 極東, 전직원대상으로

極東石油는 복리후생증진의 일환으로 전염성이 높은 B형간염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1차로 40세이상 직원에게 지난 해 12월 28일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84년 1월 중에 전원 접종할 예정이다.

##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極東 釜山工場 여직원회

極東石油 釜山工場 여직원회는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공장회의실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공장 任職員들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여직원회는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110만원을 관내구청 및 동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璽母보육원 및 소화영아再活院에 50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極東石油임직원 保育園방문 지난 12월24일, 지원금 등 전달

極東石油 張洪宣社長 및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해 12월 24일 오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동구 성내동 소재 愛地保育園을 방문, 3백20여만원의 특별지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60여명의 고아들과 함께 성탄예배 및 오락회를 가지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極東, 部課長級인사 본사 부서명칭 변경도

極東石油는 지난 해 12월 1일 및 84년 1월 1 일자로 部課長級 인사를 단행하였다.

● 전보(83. 12. 1)

본사 총무부차장 李永玩 (업무부차장)

● 부서명칭변경(84. 1. 1)

본사 업무부장 金賢培 (수입부장)

본사 업무과장 張永俊 (수입과장)

## 石油協會人事

□昇 進

▲ 기획부기획과장 金演會(기획부 기획과대리)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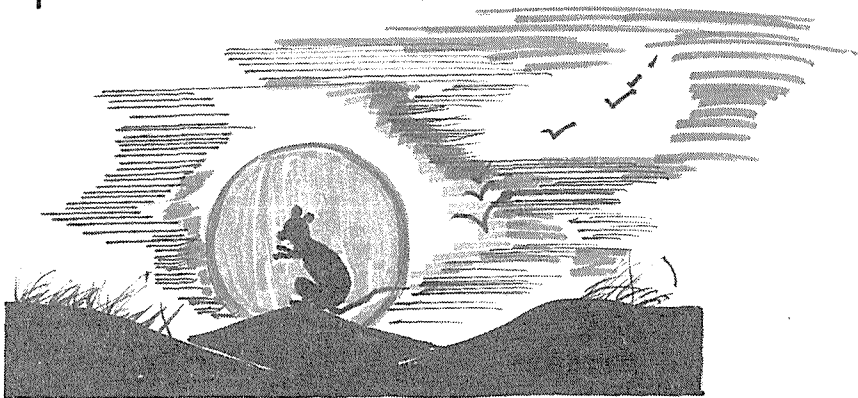
□ 轉 補

▲ 업무부총무과장 沈載萬(기획부 기획과장) (1. 17)

□ 退 職

▲ 鄭然東(업무부총무과장) (1. 16)

## 甲子年



비나이다. '쥐'띠 해에는 부디  
쥐구멍에도 쟁/하고 해뜰날이 있기를……

# 湖油 龔